



## 이사장 신년사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은 잘 하셨는지요.

매년 총회가 1월에 있다 보니 이렇게 신년사를 겸해서 인사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인사는 못 드려도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으니 참 좋은 기회인 듯도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눈이 많이 와서 보는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전국이 눈으로 덮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눈이 많은 새해인 듯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으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는데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니

풍년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 봅니다. 연말 연초에 구제역이며 AI, 그리고 소말리아 피랍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에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앞으로 있을 한 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기도 합니다.

작년에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속기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신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쓴다는 것이 작년 한 해 제 마음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사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부터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마 이것도 직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빠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속기’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올 한 해 이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로 다가올 듯합니다.

게다가 지금 수필속기사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수필속기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기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수필 속기의 장점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실무 속기사들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전승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도 새로 떠오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속기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또 직접 당사자인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속기’도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기가 발전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대한속기협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면으로 인사드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그로 인해 더욱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원대한 화두를 던지며 올 한 해에는 좀 더 속기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속기인이 되자는 말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사장 이경식

## 이사회 소식

▷ 제213차 이사회는 2010년 4월 20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임원 변경과 문화부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 보고를 받고 ▲부의안건 가항 2010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이사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한 후 2010년 5월 24일~25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라테나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사업부에 위임하였습니다. ▲ 기타 안건으로 2010년 10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 2010 중앙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가 회원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이사로부터 속기계 발간 계획을 보고받고,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전국속기경기대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18회 속기경기대회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14차 이사회는 2011년 1월 11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1항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2011년 1월 28일(금) 오후 7시 여의도 아일렉스빌딩 5층 홍보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항 2010년도 결산서에 관하여 총무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안기철 감사로부터 협회의 재정 현황이 타당하게 작성되었으나 문화부 국고보조금 지출에 있어 지적된 부분에 대해 2011년도 예산 사용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3항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하여 각 부서사업계획 보고 후 사업부의 국고 외 추가 재원 발굴, 홍보부 속기계 발간 시 학술논문 성격을 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4항 기타 안건으로 지방 회원의 협회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 회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기공개강습회 재개 의견,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교류 예산 배정, 대한속기협회 사업 현황을 인터스테노에 제공하여 뉴스레터에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0년도 사업 결과 보고

▶ 제18회 속기학술세미나가 라데나리조트(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5월 24일~2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98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이상윤 산업의학전문의, 구기성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2010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2010년 9월 28일~10월 5일)에 본 협회에서는 조영기, 최윤정, 이동준, 김점동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6호 속기계(2010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19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18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2010년 5월 24일(월)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종목 중 한 가지인 스피치캡처링 종목의 룰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분에 260자부터 400자까지, 1분마다 20자씩 빠르게 8분간 낭독한 후 20분간 수정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함으로써 향후 국제경기대회 참가에 대비함과 동시에 국내 경기대회 방식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34명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금상 김봉철(한국스테노), 은상 김선미(서울고검), 동상 정예나(성남속기학원), 장려상 지성숙(국회) 씨가 입상하였습니다.

## 회원 동정

### 승진 축하합니다!

안기철(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2010.08.05)  
박정자(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사무관(2010.06.01)  
손숙자(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사무관(2010.08.31)  
한순덕(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사무관(2010.08.31)  
조윤희·이경진(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보→속기주사(2010.08.01)  
이연화·신재선·정숙·이현아(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서기→속기주사보(2010.09.01)

### 복직 환영합니다!

최정민(국회사무처) / 2010.11.05                      손선락(국회사무처) / 2010.03.16  
최성향(국회사무처) / 2010.12.27

### 휴직 다시 만나요!

정숙(국회사무처) / 2010.03.05                                      김희준(국회사무처) / 2010.08.09  
이현정(국회사무처) / 2010.08.04

### 입사 환영합니다!

김희숙·이상욱·유준호·김영진·정다운 (국회사무처) / 2010.12.13

### 결혼 행복하세요!

주호근(국회사무처) / 2010. 08. 29

### 파견복귀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2010.02.09)  
유희연(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2010.02.09)  
황은화(국회사무처) 국외대학원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2010.08.01)

### 파견 수고하세요!

손재옥(국회사무처) / 통일연구원 (2010.02.09~2011.02.08)  
고경효(국회사무처) / 국립국어원 (2010.02.09~2011.02.08)  
정순화(국회사무처) / 국내대학원 (2010.02.09~2011.02.08)  
조미경(국회사무처) / 국외대학원 (2010.09.03~2011.09.02)



● 김영진(1985. 2.)

<질문>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별명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세요!
3.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6. 첫 월급으로 한 일!
7. 처음 회의장에 데뷔했을 때 소감은?
8. 당신에게..... 동기란?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1. 든든한 조력자.
2. 지킬박사 (쓸데없는 걸 많이 안다고)
3. 사회인야구, 직장인밴드 - 꼭 하고 싶은 취미.
4.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공성전을 보고.
5. 음악 하는 백수, 배고픈 프로그래머.
6. 부모님과 동생에게 선물, 친구들과 핏집 가서 한턱!
7. 재미있었습니다.
8. 29년, 가불해서 30년 지기.
9. 예쁘게 봐 주세요 ^^
10. 열심히 하겠습니다.



## 새내기들에게 묻다!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별명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세요!
3.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6. 첫 월급으로 한 일!
7. 처음 회의장에 데뷔했을 때 소감은?
8. 당신에게..... 동기란?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 ● 김희숙(1981, 7.)

1. 천상여자.
2. 동안종결자 (모두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
3. 세계여행.
4. 국회방송에서 속기사의 하루(권초롱 선배님) 동영상을 보고.
5. '그 회사'에 다니며 야근하고 있었겠지요 ^^
6. 카드 값 내기.
7.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설렘과 행복함.
8. 나의 사랑스러운 제2의 가족.
9. 사랑합니다~♡ 열심히, 잘! 하는 예쁜 후배가 되겠습니다.
10. 지금의 감사함 항상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 유준호(1984, 1.)

1. 똑배기.
2. 마로(캐릭터 '마시마로'를 닮았다고 해서)
3. 미드(미국드라마) 시청.
4. 행정병 근무시절 선임의 소개로.
5. 사회복지사.
6. 살림 장만.
7. 나경원, 최종원 의원을 못 보고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8. 안정제이자 자극제.
9.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실력만 갖춘 차가운 속기사가 되기보단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 이상욱(1982, 4.)

1. 깍쟁이.
2. 이씨아저씨 (면도 안 하고 수염 자라고 꽤 쾌한 모습이 공사장의 이씨아저씨 같대요 ^^)
3. 취미: 독서, 영화 관람.  
관심사: 운동, 부동산, 자기계발.
4.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고 평생직업으로서 안정맞춤이다 생각을 해서.
5. 아마도 전공을 살려 요리사나 식품공장의 연구원, 아니면 농사?
6. 어머니께 자그마한 가방 하나 사드렸습니다.
7. 떨리고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재미있고 흥분되고 실감했습니다.
8.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
9. 아직은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하고 덜렁대지만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예쁜 후배가 되겠습니다. ^^\*
10. 최고의 속기사가 되겠다는 마음과 노력으로 속기사로서만이 아니라 동료 선배 후배로서도 사랑받는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 ● 정다운(1986, 2.)

1. 미친 존재감.
2. 다용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3. 길냥이(길고양이)들의 엄마 노릇.
4.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속기, 지금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네요.
5. 임용고시를 한두 번쯤 떨어진 후에 열심히 수험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6. 할머니, 어머니, 선생님께 선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주 한 잔.
7.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떨렸지만 막상 회의장에 들어서니 매우 흥분되고 즐거웠습니다.
8. 누구 하나 놓칠 수 없는 매력덩어리들♡
9. 선배님들의 조언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10. 2010년은 저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이 시간, 이 설렘을 잊지 않고 항상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 지 사 항

###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3085      백순정(총무부장)

                  02) 788-4827      이경진(재정부장)

▲ 회비납부 : 301-0052-3315-71 농협중앙회국회지점 이경진

###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3085      고영린(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3086      박정현(홍보부장)

### ▷ 현재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www.steno.or.kr)가 현재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홈페이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7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박정현(☎ 02-788-3086)에게 연락 주세요.



【 제18회 속기학술세미나 】



대한속기협회